

##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2:17-29(현대인의 성경)

### 1. 말씀(Bible verse)

17 그러나 유대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18 율법에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상의 것을 가려낼 줄 압니다.  
19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소경의 길잡이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며  
20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 지식과 진리의  
모든 내용이 율법에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 그런 여러분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22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간음하며 우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23 율법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24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25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의 할례가 가치가 있으나 율법을 어기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되고 맙니다.  
26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를 할례받은  
사람으로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27 그래서 본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면 오히려 그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는 여러분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28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29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 2. 묵상(Observation)

- 본문에서 눈에 띠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 3. 메시지(Message)

- 유대인들이 자랑한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17-20절)

→ \_\_\_\_\_

-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실제로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21-23절)

→ \_\_\_\_\_

- 위선적인 종교가 낳은 비극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요?(24절)

→ \_\_\_\_\_

- 일상에서 "남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였나요?

→ \_\_\_\_\_

- 바울은 참된 유대인과 참된 할례를 '마음의 변화'와 '성령의 일'로 정의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외적인 규칙 준수와 마음의 변화 중, 신앙 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 \_\_\_\_\_

-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것 까지 해 봤다? 사람의 칭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4. 적용(Application)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본문에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면 그가 오히려 우리를 판단한다"라는 말씀을 통해, 타인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올바르게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2:17-29 (유대인과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웠지만, 정작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의적 규례에는 지나치게 충실했지만, 도덕적 규범은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며 철저한 준수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책망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면서도, 권력과 연대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반면, 우리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그들을 가르치려 하는 자기 분열적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일 것입니다. 죄는 우리들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 하고 숨어 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죄는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파괴했으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기 자신과 분열하게 만들며 자기를 숨기려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자기 모순적이고 자기 분열적인 삶을 돌아보며, 참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도 성경을 읽고 배우고 있으나 우리의 행위는 가르침과 다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함으로 불신자들의 본이 되지 못하고 조롱꺼리가 되곤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향유했던 신성한 진리를 소유한 특권이 이제 우리의 특권이 되었으니, 주님의 소망대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6. 기도(Prayer)